



# 신행혁신운동 및 불자상 정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일시 : 2016년 12월 10일(토) 오후 2시

○장소 :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동국대학교 중학연구소



신행혁신운동 및 불자상 정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목 차

식순	.....	05
인사말	지홍스님(포교원장) .....	08
	종호스님(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장) .....	10
발제		
제 1 주제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 .....	15
	원철스님(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제 2 주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청규안 .....	41
	박희승(봉암사 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성철연구원 연구실장)	
토론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 토론문	
	명법스님 (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	59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	63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청규안〉 토론문	
	심산스님 (홍법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	71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 대학교 교수) .....	75

## 식 순

### **식전행사(14:00~14:20)**

사회 : 혜안 스님(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삼귀의 / 반야심경 일동

인사말 지홍스님(포교원장)

종호스님(동국대학교 중학연구소장)

### **1부 발표(14:20~15:10)**

사회 : 김용환(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제 1 주제**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  
(14:20~14:45) 원철스님(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제 2 주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청규안  
(14:45~15:10) 박희승(봉암사 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성철연구원 연구실장)

### **2부 토론(15:10~15:50)**

사회 : 김용환(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명법스님 (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유 정 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심산스님 (홍법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백 도 수 (능인불교대학원 대학교 교수)

### **휴식 시간(15:50~16:05)**

### **3부 종합토론(16:05~17:45)**

사회 : 김용환(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 **마무리(17:45~18:00)**

회향사 무각스님(포교부장)

사홍서원 일동

## 의식문

### 삼귀의(三歸依)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 마한반야바라밀다반야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안 이 비 설 신 의도 없고,  
색 성 향 미 촉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3번)

## 인사말

한 해를 마감하는 계절의 길목에서 개혁과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촛불은 찬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더욱 찬연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또한 신행혁신의 시대를 열기위해 오늘 이렇게 연찬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여름 '신행혁신운동으로 전법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라는 포교원력을 세우고 5대 종책 기조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첫째 기조가 "신행혁신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불자상을 정립하고 한국불교의 신행풍토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였습니다.

푸르렀던 녹음이 단풍이 되고 낙엽으로 지는 시간동안 포교원에서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신행혁신운동의 방향과 불자상 정립 등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신행혁신운동의 슬로건과 방향, 불자상과 청규안을 제시하고, <신행혁신운동 및 불자상 정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연찬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우리 불교신행형식은 부처님 정법에서 벗어나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복에 치우쳐 있으며 보살도의 사회적 실천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생활현장에서 불교는 종교로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도들도, 스님들도, 절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불자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는 허약하고 청소년 및 청년들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은 불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탈종교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종교의 세속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내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불교는 탈종교화 시대를 극복하고 깨달음의 종교로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불교는 혁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포교원에서는 신행혁신운동을 전개하여 정법에서 벗어난 불교를 바로 잡고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되살려 오늘날 살아 있는 종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종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종교로 불교의 내일을 밝혀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포교원 자체만의 원력과 역량만으로 우리불교의 신행혁신을 이루기란 어렵습니다. 신행혁신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동방향 정립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중적 참여입니다.

때문에 신행혁신은 바로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신행혁신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신행혁신의 횃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오늘, <신행혁신운동과 불자상 정립,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연찬회에 대한 고견과 논평을 위해 자리하신 발제자 포교연구실장 원철스님, 박희승 위원님, 토론자 명법스님, 심산스님, 유정길 이사장, 백도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포교 일선에 계시는 스님들을 비롯하여, 포교단체, 신도단체, 그리고 우리 불교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행혁신운동의 전개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발제자와 토론자로 모신 패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말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0년 12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 흥

## 인사말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힘을 모아 “신행혁신운동 및 불자상 정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연찬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특히 포교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불교계 내에서는 한국 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각성의 목소리들은 있어 왔으나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에는 많은 아쉬움을 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찬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연찬회를 계기로 신행혁신 운동과 불자상이 더욱 견고하게 정립되어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우리의 실생활에 맞게 혁신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연찬의 주제를 접하였을 때,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을 따라하고,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어주기’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부처님 따라하기’와 ‘부처 되기’라는 부분이 이 연찬의 주제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것 입니다.

오늘, 이 정책연찬회를 통하여 얻어지는 귀한 결론들이 단순히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불교인들의 지침서가 되어 불자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역할을 해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0년 12월 10일

종학연구소장 **종 호**

신행혁신운동 및 불자상 정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발제문

- 제 1 주제**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 15  
신행혁신운동 '왜'하며,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원철스님/포교원 포교연구실장
- 
- 제 2 주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청구안 41  
박희승 /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 성철연구원 연구실장

##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

### 신행혁신운동 '왜'하며,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원철스님/포교원 포교연구실장

#### I. 신행혁신운동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함인가?

- 제7대 포교원에서는 기존 불교의 구습을 타파하고 희망찬 내일을 열기 위해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신행혁신 운동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걸고 이를 위한 연구와 실천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음 → 7대 포교원 포교원력 : 신행혁신으로 전법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 '혁신(革新)'이란 낡은 전통과 인습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혁신은 현재를 딛고 미래로 향해 가는 진보의 몸짓
- 만해 스님은 "유신(維新)은 파괴의 자손이요, 파괴는 유신의 어머니"라고 전제하며 구습을 일소하고 불교의 본래성 회복 강조
- 만해 스님과 성철 스님을 비롯해 근대시기에 등장한 불교개혁론의 특징은 표면적으로는 혁신과 유신을 주창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본래 모습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음
- 따라서 혁신은 불교 자체를 혁신한다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왜곡된 불교를 바로잡고, 근본에서 벗어난 신행을 개혁하여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되돌리는 운동



- 미래를 향한 부단한 혁신을 실천하는 것은 과거를 점점 심도 있게 거슬러 올라가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부흥임. 혁신 즉 부흥. 혁신 즉 부흥이라는 순환의 축은 지금, 여기 영원한 현재.<sup>1</sup>

○ 신행혁신 운동의 이념과 슬로건

- 이 념    정법에서 벗어난 신행을 혁신하여, 붓다의 삶을 따라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는 운동

- 슬로건   “붓다로 살자”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평화롭게

세상을 따뜻하게

지금 여기 깨어나 부처님처럼 살자!

1    다나메 하지메 지음, 김승철 옮김. 《참회도의 철학》 p.104, 서울: 동연, 2016. 다나메 하지메의 글을 근거로 가필.

## II. 신행혁신운동 왜 해야 하는가?

- 신행혁신운동의 취지 및 목적 -

### 1) 사회적 배경

- ▶ 탈종교화 현상에 대한 심층종교로서 능동적 대응
- ▶ 신뢰받는 종교로서 사회적 불성을 실현하는 ‘불교 사회화’의 바른 방향 모색
- ▶ 현대인들의 고통을 치유할 대표종교로서 역할 강화

### 〈세계 종교지형의 변화〉

- ▶ 탈종교화 : 감소하는 종교 인구

### ○ 한국의 종교인구 증감 추이

- 종교인구 : 1984년 44% → 1989년 49% → 2004년 54% → 2014년 50%  
(5~10년 주기로 조사하는 한국 갤럽조사 결과)

-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sup>2</sup>

- 윤승용은 갤럽조사 결과 종교인구 과반 붕괴와 종교인구 감소의 진원지로 불교를 밝히고 있음<sup>3</sup>

2    《한국인의 종교》(한국갤럽,2015), 2014년 4월 한국갤럽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임.

3    윤승용, 《한국종교지형의 변화와 불교의 미래》(포교원과 불광연구원 공동 포럼, 2015.4), p.37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 주목(아직 밝히긴 조심스럽지만 불자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심각하게 감소했다고 전함)

○ The last Christian Generation

-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길희성
- ‘가나안 성도 현상’(교회 안가는 현상을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 -양희송
- 미국 청소년 : 고교 졸업 후 69%~94%가 교회 떠남
- 미국에서 제일 큰 동창회는 교회졸업동창회(Church alumni association) : 성공회 주교 존 셀비스풍
-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지막 세대(the last Christian generation)’가 될 것 : 미국 보수주의 목회자
- 미국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 혹은 ‘나는 무신론자다’는 응답률 : 1986년 7% → 1996년 12% → 2006년 16% → 2016년 8월 25%(PRRI 조사결과)
- 미국 젊은 세대에서 신을 믿지 않는 연령대별 ‘비종교 인구 비율’ : 18~29세 39% / 30~49세 29% / 50~64세 17% / 65세 이상 13%<sup>4</sup>(PRRI 조사결과)
- \*. PRRI(미국종교공공연구소)는 “30년전 20대 가운데 10%에 불과했던 비종교 인구가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을 밝힘”
- 한국의 연령대별 비종교 인구 비율 : 19~29세 69% / 30대 62% / 40대 49% / 50대 40% / 60세 이상 32% (2014년 한국갤럽조사)

4 송민섭 기자, <젊은 세대가 종교를 버리는 이유 살펴봤더니> 《세계일보》, 2016-09-2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9/26/20160926001587.html?OutUrl=daum>.

▶ 종교의 세속화와 종교적 가치관의 영향력 감소

- 종교적 가르침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음 : 종교적 가르침의 가치 상실
-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 실망 증대
- 신뢰의 위기 (도덕성의 상실)
  - 가장 신뢰받는 사회기관 : 시민단체(27.8%), 언론(10.6%), 종교(9.2%), 정부(6.9%), 사법부(6.1%), 기업(4%), 국회(1.5%) 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년 여론조사
- 품위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 많아짐
  - 품위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많다는 의견은 불교인(88%), 개신교인(85%), 천주교인(89%), 비종교인(87%) 등 종교를 불문하고 90%에 육박 (2014년 갤럽조사)
  - 2009년 수도권 포교역량조사에서 일반종교인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의 스님에 대한 신뢰도가 27.4%에 불과

▶ 표층종교에서 심층종교로 이동 중<sup>5</sup>

- 첫째, 지금의 나 중심주의 vs 참 나의 발견
  - 표층종교 : 지금 이기적인 나, 죄인인 나, 삼독에 찌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종교
  - 심층종교 : 小我로서의 나를 극복하고 ‘참나(眞我)’, ‘큰나(大我)’, ‘얼나(靈我)’ 추구
- 둘째, 무조건적 믿음 vs 이해와 깨달음
  - 표층종교 : 자기종교의 교리나 율법 무조건 강요
  - 심층종교 : ‘이해’나 ‘깨달음’ 강조. 지금의 내가 죽고 새로운 눈뜸 추구

5 오강남, <탈종교화시대에 종교는 어떤 모습일까> 《현시대의 불교신행 운동, 왜 필요한가》, pp.21-29, 2016년 7월, 제68차 포교정책연회

○ 셋째, 초월 신관 vs 범재신론(汎在神論)

- 표층종교 : 신과 나를 영원히 분리된 두 가지 개체로 이해
- 심층종교 : 내가 신 속에 있고, 신이 내 속에 있는 신과 내가 '하나'임을 자각

○ 넷째, 문자주의 vs 속내

- 표층종교 : 종교 경전의 표층적, 문자적 뜻에 매달림
- 심층종교 : 문자주의 배격. 문자 속에 들어있는 '속내' 추구

○ 다섯째, 배타적 vs 다원주의적

- 표층종교: 자기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배타적 태도
- 심층종교 : 종교의 다양성(plurality) 인정.  
群盲撫象의 교훈으로 대화하며 꼬끼리 실상 그리기

○ 여섯째, 교리 vs 실천

- 표층종교 : 자기들의 교설이 정통적이라는 것 강조
- 심층종교 : 보살정신으로 묵묵히 남을 위해 자비 실천

▶ 제도종교에서 비 제도권 종교로 사사화

○ 신 중심 종교의 쇠퇴

- 기독교 인구가 5%가 넘는 188개국의 종교 실태 분석결과 부국일수록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와 쇠퇴 뚜렷

○ 신성한 감각의 소멸

-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진보하자 인간은 마력, 즉 정신과 악마의 존재도 믿지 않으려 했다. 인간은 예언에 대한 자신의 감각, 특히 신성한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 <The Sociology of Marx Weber>

○ 종교의 세속화와 私事化

- “제도적인 권위의 공적 생활 영역에 대한 간섭이 줄어들고 종교가 권위를 행사하는 데는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신도들뿐이고, 정체(polity)나 사회, 그 밖의 다른 부문에서는 권위가 발휘되지 못하는 사적 세계의 문제로 추락했다.” -Daniel Bell

○ 종교적 영성을 대신하는 대안 영성의 대두

- 복지제도, 여가산업, 여행, 대안운동, 이념 등이 종교를 대체
- 기, 마음수련, 명상 등 탈 근대적 영성 종교의 대두
- 기·마음수련·명상 등을 경험한 비율은 20%였고, 비종교인 중에서도 12%가 영성 관련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2014년 갤럽조사)
- 종교계에서도 종교보다 개인적 성찰과 수련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이룸 → 종교의 사사화(privatization)<sup>6</sup>

▶ 개인차원에서 종교성이나 종교적 열정은 식지 않음

- 종교성이란 공감하고 나누고 교감하는 것. 사랑과 자비의 실천, 단순 소박한 삶, 사회 정의

○ '제도종교'와 '종교성'의 구별

- “서구 사회에서 기성 종교들이 세속화와 근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쇠퇴하는 것은 사실이나, 종교와 종교적 주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오히려 증대.”(권오문)

○ 제도종교로부터 이탈하나, 종교성은 뜨겁다.

○ 이런 종교성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가 관건!

6 윤승용, 《한국인의 종교》(한국갤럽,2015), p. 133.

○ 종교 소멸론의 허구

“종교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런 흐름이 종교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에 반대.”(한스 쾅)

“세속화가 2백 년 동안 일어났는데 결정적 위축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종교는 인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지리라는 견해는 또 하나의 환상.”(길희성)

○ 종교성 증대의 요인

- ‘명상’에 대한 관심 증대 → 마음산업/힐링산업
- 정치 : 종교적 메시아니즘 등장
- 영성 / 뉴에이지 / 채식주의 / 환경운동가 등의 활동 증대

▶ 철학적인 종교, 합리적인 종교에 대한 세계 지성이나 서양 사람들의 관심 증대

○ 철학과 지혜의 종교

“불교야말로 나의 모든 저술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이다.”-M. 하이데거

○ 법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

“현대인이 가져야 하는 종교는 ‘法’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다. …유일신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생명의 법체계가 쪽이 ‘궁극적 정신적 실재’를 보다 잘 나타내고 있다.” - A. 토인비

○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돼야 한다. …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로 불교를 꼽고 싶다.” - 이인슈타인 <과학과 종교>

▶ 사회적 불성 또는 사회적 영성 / 청빈, 삶과 함께하는 불성

○ 바티칸공의회와 사회적 영성의 부각

- 제 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영성의 공공성, 사회적 영성에 주목
-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와 사회 복음화에 대해 적극 권고
- 사회정의와 인간 존엄성 보호운동 등의 실천 강조

○ 사회적 실천과 영적 수행의 불이

- 전통종교 : 사회적 실천과 영적수행을 구분하고 후자를 더 중시
- 사회적 영성 : 사회적 실천과 영적수행 동일시
- “사회적 영성의 새로움은 영적인 것이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것이 영적일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 정경일<sup>7</sup>

○ 대승의 보살→사회적 불성의 선구

- ① 여설수행(如說修行)
- ② 이익중생(利益眾生)
- ③摄受중생(攝受眾生)
- ④ 대중생고(代眾生苦)
- ⑤ 근수선근(勤修善根)
- ⑥ 불사보살업(不捨菩薩業),
- ⑦ 불리보리심(不離菩提心) - 보현행원품

7 정경일, <종교 이후의 사회적 영성> 《탈종교화시대 종교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p.25, 2016. 7, 불광연구원, 포교연구실 공동 학술연찬회 자료집.

## 2) 불교내적 필요성

- ▶ 세속화 심화로 인한 외연의 약화 및 불교 호감 층의 이탈 심화
- ▶ 기복 치중, 삶과 수행의 분리 등 재가불자 신행문화의 변화 필요성
- ▶ 청빈, 전통문화 계승자, 산사 등 불교자산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
- ▶ 사부대중 공동체의 한 축이 될 재가역량의 조직화로 미래불교 대비

### <한국불교의 위기와 기회>

#### ▶ 열정이 없는 신행

##### ○ 신행생활 없는 불자

- 주 1회 이상 의례참여 : 개신교 80%, 가톨릭 59%, 불교 6%
- 불자의례 참여 : 연 1, 2번 43%, 2~3달에 1 번 19%, 월 1 번 13%
- 불자의례 참여 중요성 : 그렇다 19%, 아니다 74%
- 불자의 기도 : 한 달에 몇 번 54%, 주 1 회 7%, 주 2~3 회 7%, 하루 1 번 5%<sup>8</sup>
- 불자들이 절에 가는 날 : 입춘, 부처님오신 날, 백중, 동지 정도

##### ○ So Cool한 신앙심

- 불자들의 자기신앙 평가 : 그저 그렇다 49%, 깊지 않다 26%, 깊은 편이다 18%
- CF) 신앙심이 깊다고 응답한 종교별 비율 : 개신교 52%, 천주교 35%, 불교 21%
- 불자들의 개인생활에서 종교의 중요성 : 매우중요 4%, 어느 정도 중요 55%, 별로 안 중요 38%

- CF) 종교평균 : 개신교 90% 중요, 천주교 81% 중요
- 불자들의 종교단체 구속 거부감 : 그렇다 67%, 아니다 31%
- 종교체험이 없는 삭막한 신행 :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종교체험'은 거의 없음(89%)
- CF) 종교체험 없음에 대한 종교평균 : 개신교 62%, 천주교 73%<sup>9</sup>

#### ▶ 공부하지 않는 불자와 가치관의 위기

##### ○ 경전읽기와 교리공부의 저조

- 경전 읽는 빈도 : 전혀 안함 48%, 생각날 때 41%, 주 1 회 5%, 하루 1 회 3%
- 주 1 회 경전 읽기 : 불교 11%, 개신교 56%, 천주교 39%
- 경전 전혀 읽지 않는 비율 : 불교 48%, 개신교 16%, 천주교 30% (2014년 갤럽 조사 내용)

##### ○ 불자로서 자부심이 부족하고 종교적 확신 빈약

- 종교가 개인생활에 중요하다고 답변 비율 : 개신교인(90%), 천주교인(81%), 불자(59%), 비교종인(30%)
- 불자들의 개인생활에 대한 종교영향력에 대한 연도별 추이: 1984년 88% → 1977년 77% → 2004년 68% → 2014년 59%
- 종교단체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한 종교별 비율 : 개신교(36) < 천주교(43) < 불교(55%) (2014년 갤럽 )
- 불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 그렇지 않다 2.4%, 그저 그렇다 11.5%, 그렇다 24.5%, 소극적인 신앙자인 무응답 61.6% (2009년 수도권 포교역량 조사)

○ 불교에 대한 가치관 정립 미비

- 불교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에 구현되지 못하고 잘 체화하지 못함
- 누구나 진리를 깨달으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해탈설에 대해서는 '그렇다' 35%, '아니다' 51%
- 누구나 진리를 깨달으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1984년 49%→2014년 35%
-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에 대해서는 28%가 '그렇다', 53%는 '아니다'(2014년 갤럽)

▶ 마음의 평화와 수행의 결핍

○ 마음의 평화 추구하나 수행 없는 불자

- 종교 믿는 이유 : 마음의 평안 67%, 복 받기 위함 11%, 사후 삶 10%, 삶의 의미 10%
- 개인성찰 관심도 : 불교 33%, 개신교 25%, 천주교 29%, 비종교 40%
- 명상참여 경험 : 불교 25%, 개신교 33%, 천주교 23%(이상 2014년 갤럽)
- \* 2014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교사회연구소의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대한 대 국민 여론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수행 프로그램(명상·참선)에 대한 관심은 불교신자 30.5%, 가톨릭 14.6%, 개신교 10.2%였는데 비하여, 명상·수행의 경험은 반대로 개신교가 27.6%, 가톨릭이 14.6%, 불교 신자는 8.7%로 드러났다.

○ 명상의 상업화와 탈불교화

- 명상은 명상산업, 마음산업 등으로 불리며 4차 산업으로 부상
- 명상의 유행과 더불어 오히려 탈종교화와 종교의 사사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상업주의와의 결합은 더 긴밀해 지고 있다.

○ 지나친 기복에 치우침

- 불자들은 종교인의 신앙생활 이유에서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44.5%로 차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42.5%, '가족의 권유로' 6.5% (CF) 타종교의 경우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개신교 18.5%, 천주교 7.2% (201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 한목협, (주)글로벌리서치)

▶ 보시(시주)하지 않는 불자와 사회적 실천의 부재

○ 시주하지 않는 불자

- 시주 안하면 참신도 아니다 : 아니다 79%, 그렇다 21%
- 시주하면 복 받는다 : 아니다 83%, 그렇다 17%
- 연 시주 빈도 : 1-2 번 45%, 3-4 번 15%, 없다 13%, 11 번 이상 12%, 5-6 번 10% (2014년 갤럽조사)
- 시주한 돈이 보람 있게 쓰인다는 인식부재
- 사찰은 부유하며 승가는 호의호식 한다는 인식만연

○ 사회적 실천의 부재/봉사활동 미약

- 삶에서 중요 한 것 : 건강 61%, 가정의 즐거움 36%, 돈 29%, 좋은 친구 22%, 종교 1%
- 사회참여 : 종교만 전념 54%, 사회문화 활동은 하되 정치반대 31%, 모두찬성 10% (2014년 갤럽)
- 종교를 향한 대중의 요구는 '사회적 불성'을 요구하나 불자는 의례중심의 신행에 안주

○ 지계의식 희박

▶ 신도들의 고령화와 법회 시행 저조

○ 신도 고령화와 청년 불자 극소수

- 지방의 경우 80년대 50~60대 보살님들로 구성된 사찰신도가 36년이 지난 현재 80대~90대가 대부분 ; 지방사찰에는 머리 허연 신도들로 가득하거나 농촌사찰은 신도들이 거의 고갈되어가고 있는 현실

충남지역 신도의 구성 비율(2014년)

선 택	제6교구		제7교구		기타 교구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 50% 이상	18	60%	22	63%	3	33%	43	58%
중년 여성 50% 이상	8	27%	8	23%	4	44%	20	27%
재가 남자 20% 이상	2	7%	2	6%	1	11%	5	7%
젊은 층 20% 이상	2	7%	3	9%	1	11%	6	8%
<b>총 합</b>	<b>30</b>	<b>100%</b>	<b>35</b>	<b>100%</b>	<b>9</b>	<b>100%</b>	<b>74</b>	<b>100%</b>

- 수도권외의 경우, 이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14년 갤럽 조사 시 종교인구 비율 감소의 주된 요인은 청년층, 2030세대의 탈종교화 이고 그 선도적 역할을 한 종교가 불교이며, 불자들 중에 고학력층과 젊은이들이 불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해 나갔다.<sup>10</sup>

○ 법회 시행사찰 갈수록 감소

- 수도권 사찰 일요법회 25% 수준
- 충남지역의 일요법회 20% 수준이지만,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회가 상당수였음 (2014년 충남지역 포교역량 조사)

- 지방 사찰 초하루법회마저 저조 : 2014년 충남지역 포교역량 조사 시, 초하루 법회 실시율은 86%로 집계되었지만, 참가신도는 10명 선 이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10~20명 선이었으며, 신도 없이 스님만 법회를 보는 사찰도 상당수였음. 무응답 사찰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을 더 현격히 떨어질 것임, 무응답 사찰의 경우 대부분 초하루법회도 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어린이 청소년 법회 및 대학생, 젊은이들 법회가 바닥 수준 : 어린이법회 10%, 청소년 법회 4%, 청년법회 4%(2014년 충남지역)
- 2015년 전국 어린이 청소년법회 시행 사찰 비율 : 교구별로 1~4%수준, 수도권만 9%이었음. (이 경우 위 충남지역 어린이법회 시행사찰률이 10%로 나온 것은 응답사찰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 탓임)

〈광역단체별 어린이 청소년 법회 시행 사찰 비율, 2015년〉

순서	지역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
1	서울	35	20
2	부산	10	5
3	대구	7	2
4	인천	4	1
5	광주	3	1
6	대전	2	0
7	울산	4	3
8	세종	0	0
9	경기	25	16
10	강원	3	1
11	충북	3	2
12	충남	6	4
13	전북	4	1
14	전남	2	3
15	경북	3	0
16	경남	9	5
17	제주	4	2
<b>합계</b>		<b>124</b>	<b>66</b>

10 윤승용, 〈한국종교지형의 변화와 불교의 미래〉(포교원과 불광연구원 공동 포럼, 2015.4), p.37

○ 전문 인력 및 화이트 컬러 비율 저조

- 교수, 과학자, CEO, 공무원, 정치인 등 불교 전문 인력은 타종교의 1/10~1/12 수준
- 전문 인력이나 지식인 불자들이 절에 오지 않거나 다닐 절이 많지 않음

▶ 닫힌 사찰 신행 공간과 지도자의 낮은 신뢰

○ 출가자 감소와 지도력 부재

- 출가자가 현격하게 감소 : 2000년 528명, 2005년 467명, 2016년 203명
- : 지금부터 30년 후인 2044년에는 출가자가 21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불교미래사회 연구소에는 내다보고 있음
- 스님들이 권위적이고 존경을 받지 못함
- 의식 있는 불자나 거사들, 젊은이들이 다닐 절이 많지 않음
- 승재가 지도 인력의 부족

○ 신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찰 신행 공간

- 일반인이나 새 신도들에게는 사찰 문턱이 높음 : 2009년 수도권 포교역량 조사 시 축제 기간 동안 전등사를 찾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결과, 대부분 사찰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답함
- 사찰에 신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 : 비가 오거나 찬바람 불 때 전통사찰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일반 신도들이 편히 앉아 담소를 나눌 공간도 태부족
- 사찰이 지역과 지역 공동체 활동에 뿌리내리지 못함
- 독거사찰 비율 증대

▶ 우리 불교의 기회

○ 포용성과 개방성

- 배타적이지 않고 유연함
- 조직적이기 보다는 내면의 자유를 추구
- 불교에 호감을 갖는 사람 많음
- :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불교' 25%, '천주교' 18%, '개신교' 10%(2014년 갤럽)
- : 그러나 2004년과 비교하면 호감 가는 종교로 '불교'를 꼽은 비율이 37%에서 25%로 감소한 반면,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33%에서 46%로 늘어남

○ 현대철학 및 현대과학과 상응

- 서양 엘리트들의 불교로의 시선
- 포스트모던철학과 불교와의 만남

○ 아름다운 산사와 문화전통 간직

- 전통사찰의 토지 및 문화 자원 활용
- 산사가 갖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힐링의 공간이기도 함
- 전통문화 콘텐츠 보유

○ 다양한 수행전통과 조사선 정신

-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수행법
- 본래 부처, 내가 주인
- 유명한 정치인, 기업인들이 명상에 심취
- 명상산업과 심층종교와의 조우



- 화합과 공유를 기저로 하는 훌륭한 공동체 정신과 제도
  - 사방 승가 및 현전 승가 전통
  
- 자연친화적 생태관과 청빈의 문화
  - 인간과 자연의 상호연기를 강조함/불교는 인간중심적이지 않다.
  - 친환경적인 교리와 가치관
  - 우리나라 저성장에 따른 불교의 청빈의 정신과 과소비 억제 상응
  - 선사나 수행자들의 단순 소박한 삶

### III. 신행혁신 운동, 어떻게 전개하나

#### 1) 신행혁신 운동의 방향

- ▶ 불자로서의 존엄성과 정체성 함양
- ▶ 삶과 수행의 일치
- ▶ 보살의 삶으로써 대사회적 실천 강화

- 불교관을 확고하게 정립하여 불자로서 존엄감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신행혁신운동
  - 불교의 합리성, 과학성, 철학성을 현대적으로 제시
  - 중도, 연기, 무아 공의 가치관과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
  
- 심층종교로서의 우위를 확보하여 탈종교화시대를 넘어서는 신행혁신운동
  - 이 시대의 문명과 시대를 통찰하고 시민사회에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지닌 운동
  
- 일상에서 삶과 수행이 일치되는 신행혁신운동
  - 바른 수행관을 정립 : 일상생활에서 중도, 연기, 무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행, 좌선만이 수행이 아님
  - 삶과 수행의 일치, 삶에 접목된 수행프로그램(분노 다스리기, 집착 해소하기, 스트레스 줄이기 등) 개발 및 보급
  - 다양한 수행법의 실용적인 지침 안내
  - 기도, 가피도 인정하되, 수행과 실천으로 갈 수 있도록 강화 : 불교의 자력적인 수행(자각)을 중심으로 하되 타력과의 조화
  - 일상에서 지혜와 자비의 삶을 실천→ 실천적 불자상과 생활 청규 제정

- 사회적 실천과 사회적 불성(영성)을 구현하는 신행혁신운동
  - 불교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실천을 위한 시선 돌리기, 사회적 약자 돌보기
  - 내면의 변화(내가 본래 부처)를 통한 사회실천 운동 지향
- 공동체(지역사회, 직장, 사찰 등)를 가꾸고 살리는 신행형신 운동
- 산사를 느낌과 힐링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신행혁신운동
- 과소비를 줄이고 청빈하고 소욕지족한 삶으로 환경을 살리는 신행혁신 운동
- 의례의식의 한글화로 참여자와 소통하는 신행혁신 운동

## 2) 신행혁신운동 전개 방법

### (1) 신행혁신운동의 지향과 과제

#### ▶ 신행혁신운동 슬로건

“붓다로 살자”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평화롭게

세상을 따뜻하게

지금 여기 깨어나 부처님처럼 살자!

#### ▶ 교리적, 역사적 당위성

##### ○ 초기불교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나 임”을 강조함

“자기야 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을 것이다.” (『법구경』)

##### ○ 대승불교에서는 공성의 실천(=정등각자, 반야), 아말라식(유식), 여래장(불성, 일심), 여래의 덕성(화엄경), 佛者 및 佛子(법화경)를 강조함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어찌하여 이 모든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데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써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망상과 집착들을 영원히 떠나게 하고 스스로 자신 속에서 여래의 넓고 큰 지혜가 부처님과 전혀 다른 점이 없음을 볼 수 있게 하리라.”

『화엄경』 「여래출현품」

##### ○ 조사선에서는 본래 부처와 주인공을 천명

- 자성은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다. 본래 구족해 있다(육조혜능)

- 마음이 곧 부처(是心即佛), (황백희운, 『전심법요』)

“마음이 본래 성불해 있다는 것을 홀연히 깨달으면, 한없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워 여실히 안락할 것이다. 또한 온갖 묘한 작용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나니,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니라.” (『서장(書狀)』, 『답진소경(答陣少卿)』)

##### ○ 한국불교와 조계종은 조사선 전통을 지니고 있음

##### ○ 테마(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

정체성부족, 타율적 신앙 → 삶을 지혜롭게

삶과 수행의 분리 → 마음을 평화롭게

사회에 대한 무관심 → 세상을 따뜻하게

자만과 나태, 혼돈을 넘어 → 지금 여기 깨어나 붓다로 살자!

○ 테마별 지향과 과제

■ 삶을 지혜롭게 → ‘내가, 그대가 붓다입니다.’

- : “너는 중생이야, 해봤자 안 돼, 감히 네가 어딜..”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본래 모습은 그대로 부처님 성품임을 믿고, 대공정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감
- : 붓다가 인종적 차별과 성적 차별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평화를 심어주었듯이 우리도 붓다처럼 역사적, 사회적 굴레와 억압을 부수고 창조적으로 살아감
- : 《금강경》과 《육조단경》의 정신에 의거 반야의 지혜에 따라 구하는 마음 없이, 기복에서 작복으로 걸림 없이 살아감

“녹슨 쇠가 녹인가 쇠인가? 부처의 모습이지만 번뇌를 껴안고 사는 나는 부처인가 중생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녹을 보고 쇠를 보지 못한다. 번뇌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중생이지 부처가 아니라고 한다. 부족하지만 나는 부처라고 대공정해야 한다. 그러한 큰 믿음으로 순간순간 타오르는 번뇌를 놓고 살아간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용타스님 『10분해탈』

- 인간은 99% 성불해 있는 상태지만, 1%가 과거의 습 때문에 중생 늪음

■ 삶을 평화롭게 → 지금 여기서 해탈(자유) · 열반(평화)의 삶을!

- :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감
- : 수행을 통해 번뇌를 열반으로 녹여냄
- : 나로부터 단순 소박한 삶(자발적 가난과 나눔)을 살아감

■ 세상을 따뜻하게 →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을 불국토로!

- : 이웃의 고통을 품어 안고, 마을과 지역을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나고
- : 마을과 지역을 성스러운 공동체의 숲을 이루어
  - 가족, 직장, 마을별 청규의 제정과 실천
- : 불교의 이상과 가치를 온 세상에 실현함
  - 범국민 캠페인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 붓다로 살자 → (이를 위해) 깨어나 붓다처럼 생각하고, 붓다처럼 실천하자!

- : 실상을 여실지견하고 지금 여기서 바로 증명되는 삶
- : 붓다의 삶 따라 배우기 - 공부, 토론, 탁마
- : 몸과 말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실천하여 완성하는 삶으로

(2) 신행혁신운동 추진 방법

▶ 플랫폼 방식 활용

- 시작단계에서는 포교원에서 주도적으로 전개
- 사찰 및 신행단체, 핵심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와 확산
- 비조직적 호감층 불자를 대상으로 느슨한 구조의 네트워크 형성
- 포교원에서는 신행혁신운동에 따른 수행 지침이나 청규 등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참여 사찰이나 단체들이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 신행혁신운동 성공적 확산 방향
  - 혁신자 계층 (2.5%) → 초기 공감 계층(13.5%) → 초기 대중적 확산 계층(34%) → 후기 대중적 확산 계층(34%) → 지체자 계층 (16%)
  - 혁신자 계층 : 포교원 및 산하단체를 비롯한 불교 신행혁신 구룹 결집(초기 동력 확보)
  - 초기공감 계층 : 신행혁신에 공감하는 전법중심도도량, 불교대학 운영사찰, 수행도량 등

-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자들이 '왜 혁신해야 하는지', 그 '왜'를 잘 제시해 주어야 함

- 그 다음 관건은 사찰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고 필드(플랫폼)를 마련해 줌

- 신행혁신운동본부 설치 : 포교원 밖에 신행혁신운동 본부를 설치하여 사찰 및 단체와 협력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

▶ **사람의 결집과 조직의 결성**

- 신행혁신을 추진할 사람들을 결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발심을 통해 신행혁신의 동력으로 육성
- 사찰, 신행단체 단위로 신행혁신 결사를 유도하여 신행혁신 조직 구축

▶ **재원과 인프라 구축**

- 신행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자원 확보
- 재원이 운동의 동력이 되고, 사회로 환원되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함
- 신행혁신을 위한 사찰계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목적기금 확보 방안 마련.

▶ **의례와 실천체계 구축**

- 신행혁신을 담보해 낼 종교적 의례와 실천체계 구축
- '남을 위한 기도', '신행혁신 육바라밀(불자상)', '신행혁신 제일', '일일신행 프로그램'등을 마련하고 신행혁신 운동차원으로 시행.
- 신행혁신을 위한 청규 등 실질적인 실천내용과 체계 설정

(3) **신행혁신의 주최, 타깃, 콘텐츠, 프로그램**

▶ **신행혁신의 주최 :**

- 포교원과 산하 전법단, 포교사단·국제포교사회 등 포교단체, 중앙신도회 등 신도단체, 상담개발원, 여성개발원, 불교인재원, 직능단체...
- 신행혁신운동에 공감 참여할 본말사 주지스님과 승가, 전법중심도량, 지역 불교연합회, 전국선원수좌회, 전국비구니회 등 종단 주요 승가단체...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와 참여 명상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 .....
- 불교시민사회단체들...

▶ **타깃 :** 핵심신도 및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 잠정적 불자

▶ **콘텐츠 :** 신도 교재 및 신행 지침서(청규 및 불자상), 수행록(수행일지), 신행요강, 매뉴얼 등

▶ **프로그램 :** 수행 프로그램/명상 및 인성 프로그램/각종 연수 프로그램

▶ **교육기관 :** 불교대학, 신행아카데미, 수행학교, 불교디지털대학 등

▶ **활용매체 :** 신행앱, 포교플랫폼, 신행매거진, 교계 신문 및 방송국, 법회와 설법자료, SNS

##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청구안

박희승 /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 성철연구원 연구실장

### 1. 왜, 불자상과 청구가 필요한가?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은 그 가치가 너무나 선명하여 일체의 다른 말이 사족일 터이나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여 한편으로는 사부대중의 이해를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와 원력을 모아 운동의 정착에 기여코자 한다.

한국불교는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지금에 이르렀으나, 조선조 500년 동안의 억불숭유 정책으로 불교 교단이 해체당한 이래 산중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 오다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광복을 거치며 서양 종교와 근대 학문의 유입, 그리고 한글이 보편화되면서 불교 종단도 여기에 대응하고자 역경·도제양성·포교의 3대 지표를 설정하고 노력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21세기 이 시점에서 조계종 포교원 차원에서 불교 신행의 좌표를 정립하고자 추진하는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은 불교사적인 의미가 매우 지대하다. 이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종합하면서 21세기에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안팎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개척해 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붓다로 살자’는 신행운동이 한국불교 현실에서 순기능을 하며 정착하기 위해선 불자들에게 바른 불자

상과 수행 지침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여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행복의 길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발제문은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실천 청구안 마련을 위해 준비하였으며, 종단 사부대중의 탁마를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원만한 실행안이 완성되기를 바란다.

## 2. 이 시대의 바람직한 불자상, 붓다

### 1) 지금까지 불자의 모습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지 어언 1700년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만큼이나 불법(佛法)의 부침도 컸다. 특히, 지금 불교는 조선조와 근세의 과보를 받고 있는데, 억불정책과 개화기, 일제강점기의 일본불교의 영향과 광복 후 결사운동과 승단정화운동을 거쳐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 출범으로 새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불자 개개인에게는 여전히 불자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한 채 무속신앙이나 유교사상과도 결합된 불교 신앙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뜻있는 불자들이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려 해도 한문 경전과 조사어록 벽을 넘기가 어려웠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우리말 역경이 진행되었으나 방대한 팔만대장경에 대한 자상한 공부 안내와 수행지침도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1994년 교육원과 포교원의 별원화 이후 사부대중의 교육과 포교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신도 교육의 체계화와 교재 편찬 등을 추진하였고, 승가교육도 체계화와 교재 편찬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최근 깨달음 논쟁에서 보듯이 불교의 기본인 깨달음에 대한 종단 사부대중의 인식조차 매우 다양하고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뿐 아니라 종단 연구소와 여타 권위 있는 설문조사에 나타난 불자들의 의식 실태를 보면, 불교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고, 신앙도 자리(自利) 위주이며, 경전을 읽지 않으며, 수행이나 실천도 매우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여 지혜와 자비의 안목을 세우고 자리이타(自利利他)행을 실천하며 생사를 해탈하여 영원한 자유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은 이 시대에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인간인 불자상을 제시하고 이를 모델로 삼아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면, 지혜와 복덕이 구축된 붓다의 삶을 성취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안내해 나가야 한다.

## 2) 이 시대 불자상, 붓다

불자상(佛者像·佛子像)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한다. 이른바 불자의 모델이다. ‘붓다로 살자’의 신행혁신운동 모델은 단연 붓다, 부처님이다. 붓다는 깨달은 이를 말하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한 사람을 뜻한다.

싯다르타가 깨달아 붓다가 된 이래로 오랜 불교의 역사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변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부파불교시대와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 대승불교와 북방불교에서는 보살, 그리고 선종이 출현하고는 조사(祖師)가 제시되었다.

21세기에 한국불교 조계종단 차원에서 신행혁신운동을 추진할 때 이상적인 인간상을 무엇으로 제시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이 지향하는 인간상, 불자상은 너무나 선명하고 명백한 붓다, 부처님이다.

인류문명사에서 인공지능이 출현할 정도로 과학 기술과 지식이 최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로병사를 해탈하여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붓다의 가르침만큼 매력적이고 훌륭한 가르침은 없을 것이다. 특히,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무자비한 자연 파괴와 교란은 급기야 자연 재해의 빈발을 가져와 지구촌의 위기감이 심화되고 빈부의 양극화와 이념·인종·민족·종교 간의 대립 갈등은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인간이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아 지혜와 복덕이 구축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는 붓다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인류 문명사적인 위기 시대에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 서양 엘리트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불교와 참선·명상은 바로 이러한 대안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붓다가 깨치고 설해 놓은 중도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체득한 불자상의 정립과 실천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실제 붓다의 깨달음과 사회적인 실천은 긴밀히 연기되어 있다. 붓다는 브라만이 카스트제도를 통해 지배하는 고대 인도사회에서 출가하여 중도연기법을 깨치고 일체 만물이 평등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선언하며 사성계급제도를 부정하고 대안의 수행공동체를 만들고 그 길을 갔다.

이 시대 인류에게도 문명사적인 여러 문제가 놓여 있는 바, 붓다가 깨친 중도를 근본으로 공부하고 실천하여 지혜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안의 가치와 문명을 개척해 나아갈 인간상, 불자상, 붓다가 절실한 과제이다.

지금 조계종 포교원이 종단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은 이러한 대안의 불자상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 3)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

'붓다로 살자'의 불자상은 붓다를 근본 모델로 하며, 불교사의 다양한 불자상을 참조하여 이 시대에 맞는 신행혁신 6바라밀 불자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 6바라밀 불자상〉

번호	덕목	실천 내용	교리 근거
1	정견	<b>불법에 정견을 세우고 지혜를 닦는 불자</b> - 중도 가치관과 연기 세계관 바른 이해와 실천	- 중도연기, 팔정도, 무아, 공의 바른 인식과 실천
2	신심	<b>불법에 신심과 발심을 갖추고 실천하는 불자</b> - 붓다의 길을 믿고 귀의하고 실천하여 깨달음 서원	- 삼귀의·오계, 사홍서원 - 본래부처 믿고 실천
3	수행	<b>중도, 무아를 체험하고 일상에서 수행하는 불자</b> - 한 수행법을 생활화하여 중도삼매 체득 실천	- 정정진, 정념, 정정, - 수행과 생활의 일치
4	자비	<b>일체를 붓다로 보고 남을 도우며 나누는 불자</b> - 동체대비심으로 배려, 존중, 돕기, 소통	- 동체대비심, 보시, 이행, 보현행원
5	청빈	<b>소육지족과 생태적 삶으로 청빈하게 살아가는 불자</b> - 자연과 더불어 의식주를 소박하게	- 의식주 소육지족, 생태적 삶, 불살생
6	화합 공동체	<b>정의와 평화의 인류 공동체를 구현하는 불자</b> - 가족, 모임, 사찰, 이웃, 사회, 인류의 공동체	- 동체대비, 수순중생, 동사, 화합승, 공동체

첫째, 불법에 정견을 세우고 지혜를 닦는 불자다. 불자라면 불법을 공부하여 불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추고 실천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불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갖추는 것이 정견의 확립이다. 불법에 정견을 세우려면 부처님이 깨치고 설해 놓은 근본교법인 중도, 연기, 무아 등을 철저히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불법을 관념적으로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마음으로 체험하고 지혜를 닦아나가야 진정한 불자다.

둘째, 불법에 신심과 발심하여 삼귀의와 사홍서원을 행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우주 만물은 본래부터 완전한 존재이나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시비분별하며 욕심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정견과 자기 자신이 우주 만물과 하나라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믿고 이를 체득하는 실천 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중도, 연기, 무아를 일상생활에서 수행하여 붓다로 살아가는 불자이어야 한다. 중도 정견을 세우고 발심한 불자는 한 수행법을 정하여 집중적인 수행을 통하여 중도삼매를 체험하고 실천하여 생사를 해탈한 영원한 자유의 불자이다. 중도 정견을 갖춘 수행이라면 모든 수행이 평등하다. 인연에 맞는 수행법을 정하여 탐진치 삼독이 본래 없다는 무아, 공을 부단히 체험하고 증득해 나가야 한다. 수행과 생활은 하나로 수행은 생활을 지혜롭게 완성하기 위한 것이지 수행 자체에 집착하거나 매몰되어선 바른 수행이라 할 수 없다.

넷째, 일체 존재를 붓다로 보고 끝없이 남을 위해 기도하고 도우며 나누는 불자이어야 한다. 중도 정견으로 보면 일체 만물이 나와 둘이 아니니 동체대비심이 나온다. 일체를 붓다로 보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통하고 도와야 한다. 남을 받들고 보시, 공양하여 무한히 보현행원을 행하는 것이 붓다의 삶이다. 이를 통해 세상을 따뜻한 불국토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의식주에서 소육지족하며 자연과 조화로운 청빈한 삶을 사는 불자이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연기적인 존재인 바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붓다는 깨친 뒤 평생 곁식과 노숙으로 전법행을 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셨다. 영원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소육지족의 청빈한 삶에 있다. 현대 인류 문명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 자연을 파괴 훼손하여 그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불자들이 앞장서서 욕망을 소육지족으로 돌리어 자연과 조화로운 생태적인 삶의 길을 개척하여 인류의 미래를 밝혀 나가야 한다.



여섯째,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불자이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와 연기적인 관계로 살아간다. 나를 비우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이 기본이다. 가족과 이웃, 사찰과 직장, 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인류 공동체가 서로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정의로워야 한다. 이기심과 욕망에 집착한 불의를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것이 붓다의 삶이다. 불자들은 늘 자기를 비우고 남과 이웃을 붓다로 보고 화합하며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 3.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청구안

이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에 근거하여 수행과 생활에서 실천 지침인 청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안이니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 탁마하며 정리해 나가길 바란다.

#### 1) 청구의 역사적 사례

청규(淸規)란 부처님 당시의 계율(戒律)이 규정하지 못한 시대적인 문제를 공동체의 규범으로 삼아 시행하는 덕목을 말한다. 불교사적으로 볼 때 청규는 백장선사 당시 선종 총림이 독립하며 시행한 것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혜결사를 제창한 보조국사의 <계초심학인문>이나 경허선사의 수선결사 청규, 용성선사의 만일참선결사 청규, 그리고 1947년 봉암사 결사 공주규약 등의 사례들이 있다.

이와 같은 결사 청규는 결사에 참여한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실천 사항이다. 결사의 목적과 참가자의 결의 수준에 따라 청규의 내용과 준수 여부는 다를 수 있다. 가령 봉암사 결사 공주규약에는 “하루 2시간 이상 노동한다” 규약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중공사를 열어 문책하고 절을 떠나야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 청규는 그러한 강제적인 청규가 아니라 수행과 생활에 가이드 라인과 같은 지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에 동참한다면 불자상을 모델로 하여 일상 생활과 수행에서 청규를 실천하면 붓다처럼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불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 2) 신행혁신운동 생활 수행 청구안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생활 수행 청구안의 기본 방향은 우리가 본래 붓다라는 방향에서 준비하였다. 먼저, 청구안의 전체적인 개요는 이렇다.

우주의 만물은 본래 완전한 존재이니 일체가 붓다이고 고귀하다. 우리도 본래 붓다이 나 분별망상에 가려져 중생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을 뿐이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중생이란 착각에서 깨어나 붓다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자.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원리인 중도 연기법을 바로 보아 정견을 세우고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고 실천하여 가정과 직장, 이웃, 사회에서 화합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발원한다.

구체적인 생활 수행 청구안은 개인과 가족·도반, 그리고 공동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린다.

### ●개인 생활수행 청구안

- 매일 아침 삼보에 예경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며, 한 수행법을 생활화한다.
- 공양 때는 합장으로 감사의 예를 갖추며, 육식을 삼가하고 소식한다.
- 하루 한 번 이상 가족과 도반, 동료들 도우며 칭찬과 격려의 표현을 한다.
- 매일 경전(조사어록)을 공부하여 정견을 세우며 일상에서 실천한다.
- 화나 스트레스를 느끼더라도 정견으로 역·순 경계를 바르게 대처한다.  
→ 역경계에 처할지라도 본래 붓다라는 정견으로 괴로움과 재앙을 지나간다.
- 매일 1천 원 이상 적립하여 남을 돕고 사찰과 단체에 보시한다.
- 한 달에 한 권 이상 독서하며 봉사하고 사찰이나 단체의 법회에 동참한다.
- 한 달에 한 번 이상 공동체 포살에 동참하여 참회한다.
- 매년 1회 이상 가족, 도반과 여행하거나 수련회에 참가한다.
- 가까운 사찰에 신도 등록하고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경전 공부와 수행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가한다.
- 매일 일지를 기록하여 생활수행을 점검하며 지혜와 자비행으로 영원한 자유의 길을 간다.

### ●가족과 도반, 이웃을 위한 청구안

-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건강 살펴 주기
- 이웃과 도반 붓다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 짜증과 화, 비난 대신 붓다로 연민하기
-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 허물만 보기
- 사찰과 시민사회단체에 정기적인 보시 후원하기
- 다른 이의 가치와 종교를 존중하며 자기 뜻 강요 않기
- 소원해진 가족, 이웃, 도반에게 안부 전하기

● 자연을 위한 청규안

- 음식을 적당량 조리하며 쓰레기 줄이기
-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 장바구니 이용하기
- 물은 한 번 이상 재활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추울 때 내복 입고, 실내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 전기, 석유 등 에너지 아껴쓰기

● 수행생활 공동체 청규안

- 가정, 직장, 사찰, 도반, 마을 등에서 수행과 생활의 공동체(모임)를 만들고 가꾼다.
- 모임 구성원이 함께 정기적인 수행과 봉사 활동을 한다.
- 구성원 모두 정기적으로 법에 맞는 생활을 다짐하는 포살을 시행한다(월 1회 권장).
- 모임은 민주·공화·평등의 대중공사 방식으로 하며, 소임자는 봉사한다.
-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하되, 결과만큼 과정을 중시하여 수행 특마의 자세로 한다.
- 내 허물은 즉시 참회하며, 도반의 지적은 감사히 받아 고친다.
- 공동체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면 칠멸쟁법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 다른 공동체와 적극 교류하여 존중과 연대의 문화를 확산한다.
- 공동체와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면서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한다.

‘붓자로 살자’ 신행혁신운동 청규안은 이상을 기본으로 제안하되,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찰, 단체, 개인은 각자 현실에 맞는 몇 가지 안을 추가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규안이 확정되면 100일 또는 1년 365일 단위 생활 수행 점검 수첩(표)이나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운동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여 신행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불자상과 청규를 잘 실천하여 모범이 될 만한 개인이나 단체, 사찰을 발굴하여 격려하면서 이를 널리 알려 다른 불자와 단체를 자극하고 동기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맺는말에 대신하여

###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원만 성취를 발원하며

지금까지 조계종 포교원 차원에서 발원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청규안을 제안해 보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중의 활발한 논의를 위한 발제안이다. 이 초안을 근거로 사부대중의 훌륭한 지혜와 원력을 모아가길 바랄뿐이다.

다만, 돌아보건대 인류 문명사와 2600년 불교 역사에서 싯다르타가 중도를 깨치고 붓다가 되어 생로병사를 해탈하여 영원한 자유와 행복의 길을 제시한 사건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룩한 일대사인연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너무 어렵고 심오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붓다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일체 만물이 그대로 온전히 붓다라는 것이다. 완성된 존재인 붓다가 스스로 분별망상을 일으켜 양변에 집착하여 중생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양변에 집착한 분별망상을 단박에 깨치면 본래 붓다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그뿐이다.

이제 과학기술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 인류는 오히려 기술 지식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촌 자연환경의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앞에서 붓다가 선언하고 몸소 보여주고 가신 깨달음을 통한 지혜와 자비의 삶은 우리 인류에게 무한한 지혜와 희망을 주고 있다.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생로병사와 일체의 재앙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번에 조계종 포교원이 발원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은 붓다의 길을 지금 여기에 생생히 살리는 길이고, 일체 만물이 곧 붓다임을 역력히 밝혀 나가는 위대한 행로가 되길 서원하며 발제를 마친다.

## 토론문

제 1 주제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 59  
토론문

명법스님 | 은유와마음연구소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 63  
토론문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동시적 모색**

유정길 |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제 2 주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71  
불자상과 청규안  
토론문

심산스님 | 흥법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75  
불자상과 청규안  
토론문

백도수 |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 제1주제

#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 토론문

명법스님 | 은유와마음연구소

제7대 포교원은 현재 한국불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행혁신운동을 제안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찬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연찬회는 포교원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신행혁신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부제에 표시한 바처럼 발표문은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포교원의 제안들을 담고 있다.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일련의 연찬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제7대 포교원의 중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신행혁신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무릇 모든 사회운동(종교운동을 포함하여)은 그 필요성과 목표, 방법, 그리고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만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런데 발표문을 통해 볼 때 신행혁신운동의 목표와 방법, 주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발표문 제2장이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에 할애되어 있지만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제3장에서 “신행혁신운동의 방향”이라는 항목만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밝힌 방향이란 다음과 같다.

“1. 불자로서의 존엄성과 정체성 함양, 2. 삶과 수행의 일치, 3. 보살의 삶으로써 대사회적 실천 강화”

이 세 항목에 대해 각각의 항목이 지시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세 가지가 함께 모였을 때 신행혁신운동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히려 모호해진

다. 기존의 수많은 불교운동과의 변별점도 보이지 않거니와 각각의 방향이 서로 중첩되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는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이 세 가지 방향성 또는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번은 2번과 3번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수되는 효과이지 그 자체가 방향성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포교정책 개발자의 한 사람인 발표자가 주장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좀 더 소상히 알려주었으면 한다.

두 번째로 방향성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방법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보인다. 발표자는 신행혁신의 주체로 네 그룹의 단체들을 지목하고 있다. 첫째, 포교원과 산하 전법단, 포교사단·국제포교사회 등 포교단체, 중앙신도회 등 신도단체, 상담개발원, 여성개발원, 불교인재원, 직능단체. 둘째, 신행혁신운동에 공감 참여할 본말사 주지스님과 승가, 전법중심도량, 지역 불교연합회, 전국선원수좌회, 전국비구니회 등 종단 주요 승가단체. 셋째,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와 참여 명상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 넷째, 불교시민단체들.

두 번째 그룹은 신행혁신운동에 공감한다고 하지만 승려 중심의 단체이다. 첫 번째와 네 번째 그룹들은 지금까지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동참해온 단체들이다. 사실 신행혁신운동의 배경에는 불교의 교세 위축과 그에 따른 위기감이 있다. 발표자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으나 위의 단체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기가 왔다면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단체들 역시 위기를 타개할 역량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단체들을 통해 어떻게 신행혁신운동을 끌어낼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발표자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불교에 관심이 있는 비불자계층을 끌어들이는 데 이들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 탁자 위의 고민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알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운동주체들은 결국 승려들과 종단에 한발을 들이고 있는 재가단체들이다. 그런데 기존의 불교운동이 출가수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신행운동의 특징은 재가신도

에게 신행혁신을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재가신도를 주체로 설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발표자는 재가신도를 주체로 보기보다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플랫폼 방식을 채택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은 관변운동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결과이다.

현재 한국불교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재가신도가 신앙의 객체, 즉 수동적인 대상으로 존재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논평자가 이끌고 있는 신행단체에서도 재가자를 주체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타성화된 재가신도들의 신행방식을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년간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재가신도들은 오랫동안 승려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 스스로 객체로서 존재했다. 그들을 주체로 삼지 않는다면 신행혁신운동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관변운동에 그치고 말 것이다. 기독교 신자들의 주체성과 비교해보면 그 문제점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더구나 비불자를 끌어들이려면 스스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과 매력이 있어야만 한다. 지금과 같은 상하위계질서로는 새로운 계층과 세대를 포섭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신행운동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느냐, 또 지금까지 객체로서 존재했던 그들을 어떻게 주체로 서게 만드느냐, 이를 위해 지금까지 종단의 활동방식이나 정책 방향, 그리고 출가승려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느냐, 또 출가수행자들에게 어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런 태도를 양성하느냐 따위의 문제들이 더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비로소 신행혁신운동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문제들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요청하며 논평을 마무리하겠다.

## 제1주제

#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 토론문

##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동시적 모색

유정길 |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 1. 낮아지는 제도종교의 관심, 높아지는 종교성

### ① 낮아지는 제도종교에 대한 무관심

- 경제적으로 어려운 7-80년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종교에 대한 의지를 높임  
그러나 현재는 경제력 상승과 복지 등의 확대로 종교에 무관심해짐
- 사회적 지성이 높아질수록, 비과학적이고 배타적, 반지성적 종교에 대한 혐오 증대
- IT와 미디어의 발달로 신비와 절대의 영역이 사라짐, 종교의 기대감 축소
-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이성으로 종교적 기대와 선호는 줄어들음,
- 부패와 부정의한 목사, 신부, 스님들의 행위로 인해 종교에 대한 신뢰 저하

### ② 높아지는 종교성에 대한 관심

- 제도종교보다 궁극의 지혜로서 담마로서의 불교에 관심 높아짐
- 자살율 1위 시대 물질보다 정신적인 고통의 극복에 대한 의지처로 종교에 관심
- 생태위기시대 사상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제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불교의 기대감고조



- 생태적 사고, 관계망적 사고로 귀의한 세계적 사상의 흐름, 불교 사상과 전통에 관심
- 개인구원의 종교보다 사회적 정의에 대한 종교의 권위와 사회적 역할의 기대
- 신은 믿지 않지만 지혜를 구하는 열정은 높아짐

## 2. 3가지 Track의 동시적 지향

-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 불교에는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 탈근대적 요소가 동시에 혼재되어 있고 각각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계층이 있고 동시에 서로 일관되게 통용되는 통합되는 논리가 있음.
- 따라서 불교의 근대화가 과제가 아니라 <전근대성의 심화>, <근대화의 강화>, <탈근대의 모색> 각각 30 : 40 : 30의 비중으로 모색 준비
- 불교의 포교의 전환은 근본으로의 귀일, 정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함

### ① 제1 트랙 : 전근대적 전통 :

전통사찰의 역사성 / 수행과 간화선의 전통 / 탈세속적인 불교문화

### ② 제2 트랙 : 불교의 현대화 :

종단운영의 민주성 / 재정의 투명성 / 의례와 문화의 현대화

### ③ 제3 트랙 : 탈근대적 불교 :

담마로서의 불교의 관심 / 고통에서 해방 해탈의 종교 / 궁극의 자유의 각성

위기시대 대안사상 / 이성을 뛰어넘는 직관과 파격의 깨달음

## 3. 3가지 Track 각각의 모색

### ① 제1 Track (전근대성의 강화) : 더욱 불교적으로 더욱 전통적으로

- 현대 지식인사회에서 종교적 형이상학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짐, 깨달음과 선적인 각성에 대해 관심이 고조
- 과거 사회적 진보는 구조의 변화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카오스, 프레탈, 양자역학적 인식 등,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 변화, 사회적 깨달음과 개인적 깨달음의 동시적 중요성이 강조, 나아가 깨달음의 혁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켄 윌버 : <무경계>, <모든 것의 역사>, <통합비전> 선불교 티벳불교 수행자이기도 하며 사람. 철학 · 종교 · 심리학 · 신(新)과학 · 인류학 · 사회학 분야의 통합 대사상가, 세계적인 자아초월심리학자 이자, 사상계의 아인슈타인
- 브루스립튼, 스티브베어맨의 <자발적 진화> 개인의 정신성, 영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인류의 진화와 경이로운 미래상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주장하는 신생물학의 거대담론
- 실행의 모색
  - 무문관의 확대, 선방수행의 기풍을 더욱 강화 전근대적 신비적 권위의 재구축
  - 탈세속화의 다양한 문화의 강화와 확대 - 더욱 보수적으로 더욱 전통적으로
  - 지정사찰의 철저한 전통부활 - 살아있는 불교박물관
  - 형이상학의 부흥, 종교적 감화력, 개인의 삶의 변화
  - 동국대와 승가대의 근대적 교육제도의 변혁

**② 제2Track (근대성의 강화) : 불교의 근대화, 시스템의 현대화, 불교의 사회화**

- 현대 사회문화에 맞는 제도개편 - 경전의 한글화, 의례의 현대화, 수행의 체계화
- 종단시스템의 민주주의 : 종교적 권위를 높이면서도 제도의 민주화, 투명화
  - 4부대중의 동등한 참여 / 탈위계화 / 신도교육의 강화 / 수행활동의 정례화
- 분권화시대 교구본사주도의 도심 지역공동체의 거점 확보
  - 지혜의 전당 : 다양한 수행공간, 정신적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적 거점
- 지역사회의 도덕적 헤게모니의 중심
  - 민중의 집 모델 (사회 단체 사무실 겸 회의공간, 모임공간)
  - 다양한 사회 공공단체의 지역적 거점역할에 불교가 근거 토대 제공
- 신도들의 다양한 자발적인 모임 / 사찰을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적 거점으로
- <신앙>으로서의 종교와 <공동체>로서의 종교를 동시에 확대, 공동체성의 확대부활
- <수행, 보시, 봉사>를 중요한 불교적 수행가치로 강화 확대
- 사회적 실천이 수행임, 이웃을 위한 실천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구한다.
- 불교의 유일한 수행공간으로서 사찰을 넘어서 학교, 직장, 가족에서 수행활동 정례화

**③ 제3Track (탈근대성의 강화) : 제도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담마로서의 불교를 강화**

-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참여할 수 있는 종교적 모임
- 타종교와 대등한 경쟁적관계의 종교가 아니라 3차원 입체적 위상으로 불교
- 고통으로 부터의 해방. 일체의 관념으로 부터의 자유,
- 명상, 수행 다양한 영성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확대.
- 환경위기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실천의 강화
- 지혜를 찾는 모임 : 무신론자들의 모임 - 신은 필요없다. 오직 지혜뿐
- 탈근대적 대안적 공동체의 모색, 실험, 시도의 지원과 이들 실천의 확산 네트워크화
- 탈근대적 모색의 국내사례를 발굴연구  
(실상사, 정토회, 안국선원, 능인선원, 한마음선원)
- 해외의 불교수행활동에 대한 본격적 조사연구  
(근대를 넘어선 다양한 탈근대적 시도주목)

## 4. 신행혁신운동 <붓다로 살자>에 대한 제안

- (1) 신행캠페인이 아니라 신행운동이 필요한 시대
- (2) 종단적 지침의 대중화와 신행주체를 결성 운동화
- (3) 운동이기 위해 :
  - 이념성 : 방향, 비전, 목적이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의 시대를 앞서가는 이념성
  - 조직성 : 중심주체가 있어야 하며 확대되어야 한다 - 사찰마다 모임결성
  - 계속성 : 반복과 강조, 지속과 강화를 통해 성과가 축적과 계속성 보장
- (4) 확장성 (활동이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확대)과 다양성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버전들이 시도되도록 권장) - 종교적 감동, 삶이 변화되어야 운동이 확장됨, 지식과 열정과 원력이 확대되어야
- (5) 주체의 발굴, 다양한 교육, 주체간의 많은 경험 및 사례교환, 크고 작은 워크샵 및 컨벤션을 통해 상호 역량강화
- (6) 기술과 지식의 확대가 아니라 열정과 원력이 확대되는 것이 초점
- (7) <붓다로 살자>의 슬로건
  - 삶을 지혜롭게 / 마음을 평화롭게 / 세상을 따뜻하게 / 자연을 아름답게
  - <지혜로운 삶 / 평화로운 마음 / 따뜻한 세상 / 아름다운 자연> 붓다로 살자

- (8) ① 수행 (매일 기도와 명상, 경전,법좌모임) / <신호등 명상>
  - ② 보시 (매일 천 원씩 보시, 삼보수호비 정례화, 수입 5% 사회환원 / 유산남기지 않기)
  - ③ 봉사 (최소한 하루에 한번 의식적인 사회적 실천, 자원봉사, 단체가입활동)
    - : 생애 1년은 반드시 사회활동 전념) 권장
- (9) ① 바른불교 (기복불교를 넘어 바른불교 / 불교공부의 일상화 / 다양한 신행불교공동체)
  - ② 생활불교 (소욕지족의 생활실천, 마음밭 일구는 수행, 생활속에서 불교적 삶을 실천)
  - ③ 실천불교 (사회적 실천이 곧 수행, 읍면동등의 지역사회 지키고 가꾸는 활동)
- (10) 정례적인 수행모임(수행나누기 법좌)의 중요성, 생활불교실천모임이 되어야 함
- (11) 다양한 사회실천 <덕분에>운동, <내가 하겠습니다>운동, <천지보은은혜갚기>운동, <감사>운동, <참회>운동, <뽀>운동, <심고>운동 기타

## 5. 통일이후를 대비, 세계화를 대비하는 포교

- (1) 북한주민의 경제적 상황에서 근대성이 필요 - 생존과 생활의 절박성 해소
- (2) 일국단위의 지역포교전략의 기획 - 전국단위의 포교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 (3) 국제화와 세계화를 고려한 포교에 대한 연구와 구상

---

## 제2주제

#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청규안 토론문

심산스님 | 홍법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

이 발제문은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이를 모델로 삼아 공부하고 실천하여 붓다의 삶을 성취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쓴다고 밝히고 있다.

바람직한 인간상의 핵심내용은 ‘육바라밀 불자상’으로 정견, 신심, 수행, 자비, 청빈, 화합공동체라는 여섯 가지 덕목을 갖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행 청규안’을 개인과 가족 및 도반, 공동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할 때 반드시 선행하는 물음이 있다. 무엇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압축하여 표현하자면 연기(緣起)와 중도(中道)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모든 교설은 이 연기와 중도에 대한 부연적 설명이며 그 둘의 다양한 표현이다. 연기는 현상세계의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법칙이며, 중도는 현상세계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그 진실한 법칙에 합치하기 위해 행하는 인식과 실천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연기와 중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기는 올바른 인식의 측면을 가리키고, 중도는 올바른 실천의 측면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의 완성을 해탈 혹은 열반이라 하며, 그 성취자가 붓다인 것이다. 붓다는 진실한 법칙에 합치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며 그 행위는 불편부당함이 없는 완전한 인격자이다.

따라서 ‘붓다로 살자’는 모토를 중심으로 불자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기와 중도에 바탕한 논리적 검토가 선행해야 한다. 연기와 중도를 알아듣기 쉽게 구체화 한 것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십이인연 등의 근본교설이라면, 근본교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청규안에 대해 간단한 논평을 하려고 한다.

## 1. 신행혁신 육바라밀 불자상에 대하여

발제문은 ‘붓다로 살자’의 불자상은 붓다를 근본 모델로 하며, 불교사의 다양한 불자상을 참조하여 이 시대에 맞는 신행혁신 6바라밀 불자상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붓다를 근본모델로 불자상을 제시한다면 육바라밀을 제시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신행혁신운동이 지향하는 인간상, 불자상은 너무나 선명하고 명백한 붓다, 부처님이다.”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이상 육바라밀보다는 팔정도가 덕목으로 들어가야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보살로 살자’가 아닌 ‘붓다로 살자’는 모토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보살이라는 개념이 붓다가 되기 이전의 수행 시기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붓다라는 개념과 다름없이 보아 육바라밀을 내세웠다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

는 덕목으로 일관성있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적인 실천내용은 팔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팔정도를 뼈대로 하여 재정리하는 것이 ‘붓다로 살자’는 모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청규안에 대하여

발제문은 구체적인 생활 수행 청규안을 개인과 가족 및 도반, 그리고 공동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는데, 삼취정계(三聚淨戒)와 사섭법(四攝法)과 같은 대승계가 내용으로 스며들어 있다. 불교윤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청규안의 내용의 뼈대는 지혜와 자비, 생명살림이라는 세 가지 가치로 보인다.

청규안의 내용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생활지침의 성격을 띠고 있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가안거 수행이 오히려 대안이라고 본다. 시간적으로 일 년 중에 반인 안거를 정착 시키고 점차 연중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불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생활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항목의 고민은 더 간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청규안」은 이 시대의 불자상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모색의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는 글이었다. 몇 가지 전제에 있어서 함께 더 고민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지만 이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제2주제

#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청규안 토론문

백도수 |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제1주제에서 불자의 신행문제를 타종교와 비교하며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을 제시하였고, 제2주제는 불자상과 청규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조계종의 신행혁신운동은 신행혁신의 이론을 실현하는 행동이다. 부처님은 『숫타니파타』 제3장 「대품」에 일체는 행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셨다.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행위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신행혁신운동은 불자의 바른 실천행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신행혁신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행혁신이 조계종 전체 이슈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승가와 재가와의 관계에서 승가상과 불자상이 정립된다. 승가의 정체성은 교육(법담)과 수행 그리고 화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가의 정체성을 찾아보면,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은 선행을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불자는 믿음을 갖고 삼귀의하고, 오계를 지키며, 합장인사하며, 법회참석과 교육과 수행을 통한 사찰활동에 앞장서고 사회적으로 불교전파와 불교 우호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불자상의 기본은 불자다운 실생활과 승가를 보살피는 임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승가상과 불자상에 대한 관계성을 정립한 후에 불자상의 목적과 목표, 내용과 운영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목적과 목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불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과 사정을 통한 변화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바람직한 불자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불자의 문제발견과 분석을 통해 불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그리고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은 현대의 불자가 불자로서 욕구하는 바, 불자의 자질로서 갖춰야 할 바를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불자가 무엇인가 물으면, 대개 합장하는 불자, 삼귀의 하는 불자, 보시, 기도, 법회에 참여하고 수행하며, 사회에 모범이 되는 불자를 떠올린다. 불자상에도 낮은 단계의 불자상과 높은 단계의 불자상으로 다양하게 구별할 필요가 대두된다. 그러므로 불자상에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좋은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고 성취가능하고 목표에 적합하고 분명한 시간들을 지니고, 도전적이어야 한다.

신행혁신운동은 구체적이고, 수량화 가능하며,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 시간별 목표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차후 논의필요) 발제자의 신행혁신 6바라밀 불자상에서 6바라밀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핵심키워드이다. 보시는 자비로운 불자, 지계는 보호하고 지키는 불자, 배려하는 불자, 노력하는 불자, 수행하는 불자, 지혜로운 불자와 관련된다. 발제자 제시한 것 중 6바라밀에 자비, 청빈, 수행, 정견이 포함되지만 신심과 화합공동체부분은 오히려 6바라밀 수행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구보리하화중생, 자리아타의 입장에서 보면 순서가 신심, 청빈, 수행, 정견 그리고 자비와 화합공동체로 나눌 수 있다. 수행순서로 보면, 신심, 청빈, 수행, 정견, 화합과 자비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6바라밀 불자상의 실천내용을 간단한 문구로 전환하고, 수행차제로 표현하여 피라미드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라밀 수행단계를 요일별로 진행하던, 아니면 1년 단위로 한 목표를 세우고 6년간 실천하고 점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신행혁신운동은 신앙적 차원, 교육적 차원과 수행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자로서 신앙, 교육, 수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세분화하고 그것에 맞는 실천운동을 전개하면 된다. 운동은 단순화하고, 명료화해야 하며, 실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복잡한 내용을 전개하면 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의 역량(자료와 인력, 실천기술, 재원의 공급역량)과 불자의 참여와 사회적 환경의 삼자를 고려하여 전개해야 할 것이다. 신행혁신운동은 목적(목표)이나 과정중심의 해결과 문제(주제)중심해결로 나누어 전개할 수 있다. 조계종에서 내세우는 신행혁신운동을 정확히 목표화하고 단계별로 실천하거나 문제(합장인사운동, 법회참여운동, 기도나 수행참여운동 등)를 설정하고 운동을 전개하면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한 운동이 자발적이고 자생적일 수 있도록 위에서는 프로그램과 자원 등을 형성하고 아래로부터 혁신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중심에서 지역 단위사찰 중심으로 신행혁신운동의 리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발제자가 제안한 청구라는 말은 불자들에게 너무나 와 닿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실생활에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불자에게 맞는 불자행동강령이나 행동운리 등 현실적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구는 주로 승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되며 오계, 팔계, 십선업도 등이 불자와 관련된 불교적 행동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안(변경요청)은 구체적이지만 너무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단순화하고 단계적이며 실현가능한 것을 선택하고 시기별로 정리되어야 한다. 개인, 가족과 도반, 이웃, 자연, 수행생활 공동체 청구안을 시간, 장소, 대상 그리고 실천단계별로 정리하고 다시 구체적 실천단계로 신앙적, 교육적, 수행적 차원에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발제 내용 중 사찰에서 신행혁신운동 주제로 3개 정도 정해 놓고 시기별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발제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Target이 되는 불자 당사자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이해하고 동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불자가 동참하지 않는 신행혁신운동은 결국 이론화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신자에게 맞는, 변화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신행혁신운동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신행혁신운동을 위한 연구작업과 교육훈련

- ① 경전에 나타난 불자상 발굴과 교육자료 발굴(제일신자(전문화된 신자), 보살(중생구제, 사회봉사실천, 승가외호 등 사상, 인물과 스토리 등 연구)
- ② 신행혁신운동(불자상) 연구개발프로젝트 마련(현대에 맞는 신행혁신운동 연구팀 구성)
- ③ 불자상 사례발표회(각 지역별, 각 단위사찰별 불자상 사례연구와 발표)
- ④ 신행혁신운동 정례적 교육(승가와 재가), 기본교육(불교대학)

## 2. 신행혁신운동을 위한 조직활동

- ① 신행혁신(불자상 정립)을 위한 혁신조직 필요(신행혁신운동위 발족),
- ② 총무원, 본사, 각 단위사찰별 신행혁신을 위한 조직화 필요
- ③ 총무원과 지역 단위사찰간의 수평적, 수직적 조직과 연대형성

## 3. 전략, 전술, 단계별 신행혁신운동 실천계획마련

조계종 신행변화목적 확인→총무원, 사찰단위 구체적 역할 부여→변화노력을 위한 신행표적 확인→사정→변화전략→재원확보→조직적 실천(상세한 부분은 논의할 부분임)

## 4. 포상계획

- ① 원장상, 지역불자상(매년)
- ② 신행혁신운동 단체 포상(매년)
- ③ 직능별 불자상(매년)

## 5. 홍보 마케팅 전략

- ① 각 사찰마다 신행혁신운동을 위한 기금(보시)창구마련(수문제 탑조성 사례 착안), 인터넷 플랫폼, 사찰 플래카드 홍보
- ② 불자의 날 제정과 행사
- ③ 방송매체나 불교단체, 불교대학의 교육을 통한 홍보
- ④ 상징성을 지닌 신행혁신운동의 성지화, 상징적 공원, 조계종 사이트 배너광고와 홈페이지 링크 마련
- ⑤ 각종 불교행사에 신행혁신운동의 홍보

: 조계종의 신행혁신운동은 이 시대에 적합한 신행방향을 전개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신행혁신이 사부대중이 공감하고 함께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논의와 조직, 실천기술에 대한 논의가 세밀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말 사홍서원(四弘誓願)**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7대 포교원 제 5차 포교정책연찬회

**신행혁신운동 및 불자상 정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대 토론회**

---

**발행일** 불기2560(2016)년 12월 10일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연구실

**종단 간행물 번호** 010302-2016-195

---

비매품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